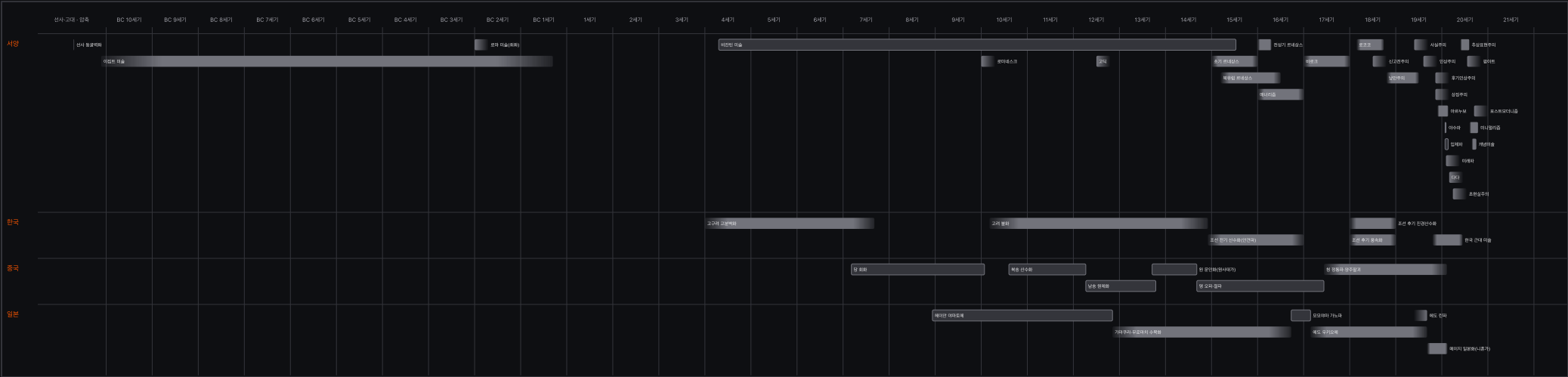


# 미술사조 연표

서양 미술 사조를 세기 단위 연표로 늘어놓고, 한국·중국·일본을 나란한 줄에 둔 사전이다.  
카드마다 시기, 정의, 특징, 퍼블릭 도메인 대표작을 적었다.  
그림 스타일 사진과 짝을 이루며, 프롬프트에 시대의 룩을 사조 이름으로 지정할 때 쓴다.  
각 정의는 미술관·브리태니커·학술 문헌의 원어 인용을 근거로 달았다.



선사·고대 구간은 압축 표시이며, BC 1000 이후 눈금선은 100년 경계이다. 연대 한쪽이 미상이면 알려진 연도에서 30년 길이로 흐려지며 실제 존속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양쪽이 미상이면 연표에서 생략한다. 흐린 양끝은 대략적인 시기를 뜻한다.

## 고대

선사 동굴벽화부터 로마 회화까지를 한 묶음에 둔다.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 고전기 미술이 그 사이에 있다.

서양 줄의 첫 묶음이다.

PREHISTORIC (PALEOLITHIC) CAVE PAINTING

선사 동굴벽화

?–BC 15000

시작 연도 인용 근거 미확인

선사 동굴벽화는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굴 벽과 천장에 그리거나 새긴 벽면 미술이다. 라스코의 동물은 배경 없이 옆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대체로 머리는 옆모습이고 뿔은 정면으로 보이는 비튼 원근을 따른다.

- 배경 없는 동물의 옆모습
- 대체로 옆얼굴·정면 뿔의 비튼 원근
- 굵고 리듬 있는 윤곽과 덧그림

대표작: 라스코 동굴벽화(Lascaux) · 미상 · ca. 15,000 B.C. · 라스코 동굴(프랑스 도르도뉴, 현지)



ANCIENT EGYPTIA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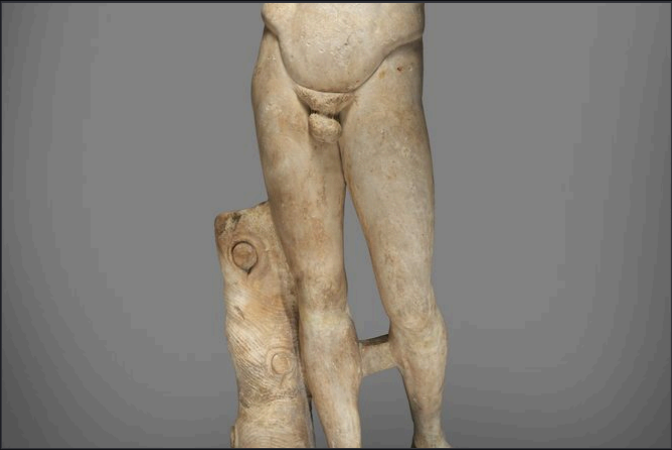
이집트 미술

약 BC 3100–BC 30 · BC 31세기–BC 1세기

이집트 미술은 기원전 3100년 무렵 초기 왕조부터 기원전 30년 로마 속주화까지 이어진 고대 이집트의 미술이다. 각 요소를 가장 알아보기 쉬운 각도로 그려 합친 복합 시점과, 크기로 위계를 나타내는 방식이 핵심 특징이다.

- 얼굴·다리 옆, 눈·어깨 정면
- 크기로 신분 위계 표시
- 가로 띠(레지스터) 배열

대표작: Nikare with his Wife and Daughter · 작자 미상 · ca. 2420–2389 BCE or later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LASSICAL GREEK ART

그리스 고전기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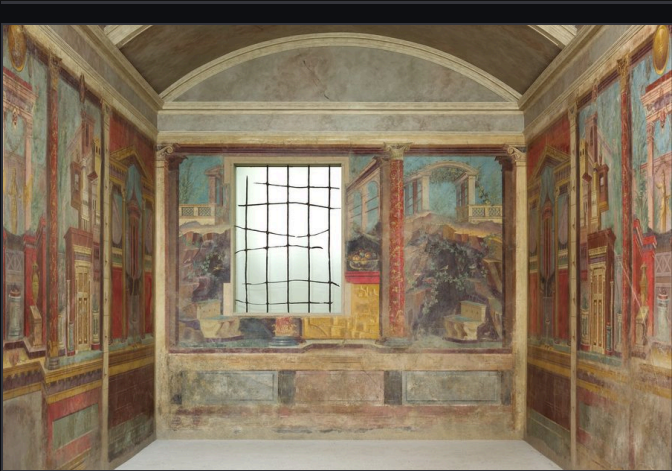
연대 미상

시작 연도 인용 근거 미확인 · 끝 연도 기관 미제시

그리스 고전기 미술은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 격퇴 뒤 아테네가 주도한 기원전 5~4세기의 그리스 미술이다. 생동감과 함께 영속성·명료함·조화를 전하는 표현에 이르렀고, 폴리클레이토스는 이를 위한 비례 체계를 세웠다.

- 생동감과 조화의 균형
- 비례 체계
- 대리석 건축과 조각

대표작: 디아두메노스(Diadoumenos) 대리석 모작 · 폴리클레이토스에게 귀속되는 원작의 로마 모작 · ca. 69–96 CE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ROMAN PAINTING

## 로마 미술(회화)

약 BC 200-?

끝 연도 기관 미제시

로마 회화는 사실상 회벽 위에 그린 벽화의 역사이며, 미술사가들은 그 전개를 네 가지 양식으로 나눈다. 대리석을 흉내 낸 제1양식에서 그림만으로 건축을 환영처럼 그린 제2양식으로 나아갔다.

회벽 위 프레스코 벽화

대리석 모방(제1양식)

그림으로 그린 건축 환영

대표작: Cubiculum (bedroom) from the Villa of P. Fannius Synistor at Boscoreale ·

작자 미상 · ca. 50-40 BCE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중세

비잔틴 미술·로마네스크·고딕 세 항목이다.  
고대 다음, 르네상스 앞에 놓인다.  
카드의 대표작으로 세 양식의 그림을 눈으로 확인한다.



BYZANTINE ART

## 비잔틴 미술

330-1453 · 4세기-15세기

비잔틴 미술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방 기독교 제국의 미술이다. 광원과 무관한 금색이나 흰색 선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했으며, 이콘 사용과 에나멜·모자이크가 중요했다.

- 금색·흰색 선을 통한 하이라이트
- 모자이크·에나멜의 활용
- 이콘의 중요성

대표작: Icon with Saint Demetrios · 작가 미상 · 950-100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ROMANESQUE

## 로마네스크

약 900-?

10세기 기원의 근사값 · 끝 연도 기관 미제시

로마네스크는 10세기 독일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퍼진 건축·미술 양식이다. 둥근 아치, 성당 파사드·문간·기둥머리의 조각, 교훈적 프레스코가 특징이다.

- 둥근 아치·육중한 벽
- 파사드·기둥머리 조각
- 교훈적 프레스코

대표작: Apse from San Martin at Fuentidueña; Gallery 002 · 미상 · ca. 1175-1200 · The Met Cloisters



GOTHIC

## 고딕

약 1150-?

끝 연도 기관 미제시

고딕은 12세기 중엽 파리 일대에서 뾰족 아치를 바탕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 16세기까지 이어진 미술·건축 양식이다. 벽을 열어 큰 창을 냈고, 회화·조각에서는 길게 늘어난 인체와 흐르는 선의 옷주름이 특징이다.

- 뾰족 아치
- 길게 늘어난 인체
- 흐르는 선의 옷주름

대표작: Diptych with Scenes of the Annunciation, Nativity,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 작가 미상 · 1300-132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르네상스~로코코

초기·전성기·북유럽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바로크·로코코·신고전주의를 한 묶음에 둔다.  
그림 스타일 사전의 형식 원리 묶음이 고전과 바로크를 짝으로 다루므로, 두 페이지를 오가며 읽는다.  
항목 수가 가장 많은 묶음이다.



EARLY RENAISSANCE

## 초기 르네상스 Rinascimento

약 1400–1500 · 15세기

초기 르네상스는 1400년 무렵부터 15세기 동안 이탈리아에서 고전 미술의 재발견을 바탕으로 일어난 미술의 부활이다. 마사초와 도나텔로가 피렌체에서 연 사실적 양식으로, 인물이 무게감 있고 입체적이 되며 공간이 설득력 있게 구성됐다.

- 무게감 있는 입체 인물
- 설득력 있는 공간 구성
- 고전 고대의 부활

대표작: 겸손의 성모(The Madonna of Humility) · 마사초 · c. 1423/1424 ·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HIGH RENAISSANCE

## 전성기 르네상스

약 1500–1530 ·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는 약 1500~153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레오나르도·미켈란젤로·라파엘로·티치아노가 주도했고, 라파엘로의 양식은 이후 19세기 중엽까지 아카데미의 본보기가 되었다.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절정
- 거장들이 주도한 미술
- 아카데미 본보기인 라파엘로 양식

대표작: 알바의 성모(The Alba Madonna) · 라파엘로 · c. 1510 ·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NORTHERN RENAISSANCE (EARLY NETHERLANDISH PAINTING)

## 북유럽 르네상스

약 1420–1550 · 15세기–16세기

북유럽 르네상스는 약 1420~1550년 부르고뉴령 네덜란드(저지대)를 중심으로 꽃핀 회화이다. 유화의 얇은 글레이즈로 빛나는 색과 극미한 사실성을 이뤘고, 얀 반 에이크와 로히어르 반 데르 베이던이 대표한다.

- 유화의 얇은 글레이즈
- 사실적인 묘사
- 색채·기술의 숙련

대표작: Annunciation Triptych (Merode Altarpiece) · Robert Campin · ca. 1427–32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ANNERISM

## 매너리즘 Manierismo

약 1500–1600 · 16세기

매너리즘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퍼진 16세기 미술의 한 유형이다. 도시·궁정의 세련미, 정교한 마무리, 의식적 양식화와 장식적·표현적 목적의 비자연적 색이 특징이다.

의식적 양식화   정교한 마무리   비자연적 장식적 색

대표작: Portrait of a Young Man · Bronzino (Agnolo di Cosimo di Mariano) · 1530s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BAROQUE

## 바로크 Barocco

약 1600–1700 · 17세기

바로크는 17세기 미술과 건축을 지배한 양식으로, 로마에서는 약 1630~1680년에 절정을 이루며 가톨릭 반종교개혁과 결부되었다. 대각선 구도와 환영 효과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극적이고 풍성한 작품이 특징이다.

대각선 구도   극적이고 풍성한 표현   환영 효과

대표작: The Denial of Saint Peter · Caravaggio (Michelangelo Merisi) · 161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ROCOCO

## 로코코

약 1715–1774 · 18세기

로코코는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발전한 가볍고 감각적이며 강하게 장식적인 양식이다. 로카유에서 이름이 왔으며, 조개·산호 형태와 짧은 곡선·소용돌이·역곡선을 활용한다.

짧은 곡선·소용돌이   가볍고 감각적인 장식   조개·산호(로카유) 형태

대표작: 책 읽는 소녀(Young Girl Reading) · 장오노레 프라고나르 · c. 1769 ·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NEOCLASSICISM

신고전주의

약 1750-?

끝 연도 기관 미제시

신고전주의는 약 1750년부터 나타난 특히 순수한 형태의 고전주의로, 18세기 후반 고전 고대의 영향이 커지며 확산되었다. 조화·단순함·비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핵심이다.

- 조화·단순함·비례
- 고전 고대의 영향
- 고전주의의 순수한 형태

대표작: The Death of Socrates · Jacques Louis David · ca. 1782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19세기

낭만주의·사실주의·인상주의·후기인상주의·상징주의·아르누보 여섯 항목이다.

각 카드의 대표작으로 사조 사이의 차이를 눈으로 대조한다.

20세기 전반 묶음으로 이어진다.



ROMANTICISM

## 낭만주의

약 1780–1850 · 18세기–19세기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이성·질서에 대한 환멸에 응답해 상상력과 감정을 강조한 미술·문학 운동이다. 고전적 절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감정주의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자연에 대한 관심이 특징이다.

감정·상상력 강조

격렬한 자연의 힘

고전적 절제와 대비

대표작: Salisbury Cathedral from the Bishop's Grounds · John Constable · ca. 182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REALISM

## 사실주의

약 1840–?

끝 연도 기관 미제시

사실주의는 약 1840년부터 19세기 후반까지 프랑스에서 번성하며 동시대 삶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려 한 운동이다. 아카데미의 이상화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이국 취향을 거부하고, 농민·노동계층의 일상을 직접 관찰해 그렸다.

농민·노동자의 일상

직접 관찰의 객관성

이상화 거부, 거친 주제

대표작: Young Ladies of the Village · Gustave Courbet · 1851–52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MPRESSIONISM

## 인상주의

약 1860–?

끝 연도 기관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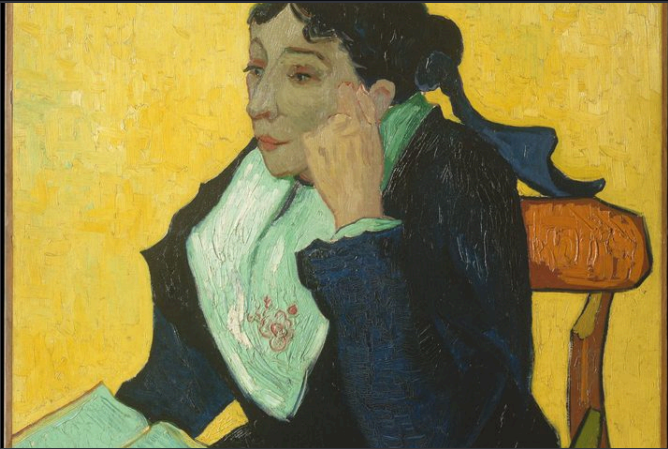
인상주의는 1860년대 초부터 모네 등 파리의 화가들이 발전시킨, 화실이 아닌 야외에서 즉흥적으로 그리는 회화이다. 빛의 덧없는 성질을 담기 위해 붓질이 빠르고 분절된 터치로 쪼개졌다.

야외 현장 사생

빠르고 분절된 붓터치

빛의 순간적 성질

대표작: 일본식 다리(The Japanese Footbridge) · 클로드 모네 · 1899 ·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POST-IMPRESSIONISM

## 후기인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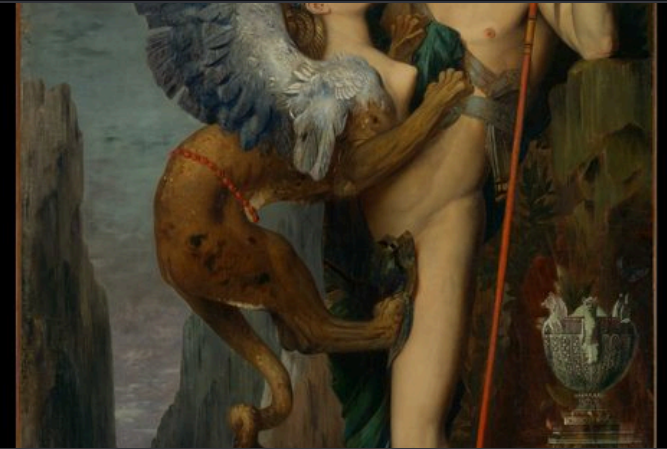
약 1886-?

끝 연도 기관 미제시

후기인상주의는 약 1886년부터 인상주의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확장한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순한 광학적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과 깊은 상징을 표현하려 했으며, 단순화된 색과 분명한 형태, 추상적 경향을 보였다.

- 단순화된 색·분명한 형태
- 감정·상징 표현
- 순색 점묘(시라)

대표작: L'Arlésienne: Madame Joseph-Michel Ginoux (Marie Julien, 1848-1911) · Vincent van Gogh · 1888-89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YMBOLISM

## 상징주의

약 1886-?

끝 연도 기관 미제시

상징주의는 자연 세계의 사실적 묘사보다 관념의 표현을 옹호한 19세기 후반의 운동이다. 미술은 자연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보다 감정이나 관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랑·공포·죽음·욕망 같은 주제를 단순화된 비자연적 양식으로 그렸다.

- 관념·감정의 표현
- 사랑·공포·죽음·욕망의 주제
- 단순화된 비자연적 양식

대표작: Oedipus and the Sphinx · Gustave Moreau · 186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RT NOUVEAU

## 아르누보

약 1890-1914 · 19세기-20세기

아르누보는 1890년대에 나타나 제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번성한 건축·디자인의 국제 양식이다. 구불거리는 선과 채찍 곡선은 일부가 식물학 연구와 심해 생물 삽화에서 유래했다.

- 구불거리는 채찍 곡선
- 식물학 연구에서 일부 유래한 형태

- 심해 생물 삽화에서 일부 유래한 형태

대표작: Mäda Primavesi (1903-2000) · Gustav Klimt · 1912-13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20세기 전반

야수파·표현주의·입체파·미래파·다다·초현실주의 여섯 항목이다.

카드의 특징 항목을 프롬프트의 형용 단어로 옮겨 쓴다.

20세기 후반 묶음으로 이어진다.

## FAUVISM

### 야수파 Fauvisme

약 1905–1910 ·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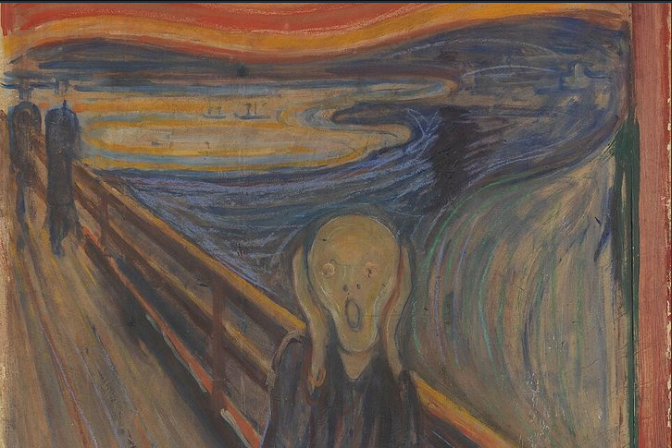
야수파는 약 1905~1910년 마티스·드랭 등의 강한 색과 사나운 붓질이 특징인 작품에 붙은 이름이다. 비자연적 색을 흔히 튜브에서 바로 짜 쓰고 거칠고 느슨한 붓터치를 활용했으며, 20세기 초 프랑스 아방가르드 운동 가운데 첫 번째였다.

강하고 비자연적인 색

거칠고 느슨한 붓터치

흔히 튜브에서 바로 짠 물감

대표작: 콜리우르의 고깃배(Fishing Boats, Collioure) · 앙드레 드랭 · 190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EXPRESSIONISM

### 표현주의

#### 연대 미상

시작 연도 인용 근거 미확인 · 끝 연도 기관 미제시

표현주의는 주관적 감정과 내적 경험, 정신적 주제의 표현을 가리키는 미술이며, 용어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근대 미술가들에게서 유래한다. 색은 강렬하고 비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형태는 왜곡된다.

강렬한 비자연적 색의 가능성

왜곡된 형태

주관적 감정·내적 경험의 표현

대표작: Der Schrei der Natur The scream of nature · Edvard Munch · 1893 · 노르웨이 국립박물관(Nasjonalmuseet), 순수미술 컬렉션

## CUBISM

### 입체파 Cubisme

1907–1914 · 20세기

입체파는 1907~1914년 파리에서 피카소와 브라크가 만든 시각 양식이다.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해 얇은 부조 같은 공간에 재배치하고 여러 시점 또는 대조되는 시점을 활용했다.

기하학적 면으로 분해

여러 시점 동시 표현

얇은 부조 같은 공간

대표작: 아비뇽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 · 파블로 피카소 · 1907 ·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FUTURISM

미래파 Futurismo

약 1909-?

끝 연도 기관 미제시

미래파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미술 운동이다. 산업과 기술의 근대 세계를 찬양했으며 신인상주의와 입체파의 요소를 활용했다.

산업·기술 찬양

입체파 요소 활용

신인상주의 요소 활용

대표작: 공간 속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Unique Forms of Continuity in Space) · 움베르토 보초니 · 1913 (cast 1931 or 1934) ·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청동 주조본)

DADA

다다

약 1916-?

끝 연도 기관 미제시

다다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취리히에서 형성된 미술 운동이다. 다다의 미술·시·퍼포먼스는 흔히 풍자적이고 무의미하며, 반전·반부르주아 성향을 띠었다.

흔히 풍자적·무의미한 표현

반전·반부르주아

미술·시·퍼포먼스

대표작: 샘(Fountain) · 마르셀 뒤샹 · 1917(원본 소실, 1964 복제) · Tate(복제본)

SURREALISM

초현실주의 Surréalisme

약 1924-?

초현실주의는 1924년 앙드레 브르통의 선언으로 공식화된 국제적 지적·정치적 운동이다. 자동 드로잉과 자동기술을 통해 무의식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끌어내려 했다.

자동기술·자동 드로잉

무의식의 상상력

무의식에서 끌어낸 이미지

대표작: 영원히 자명한 것(The Eternally Obvious) · 르네 마그리트 · 194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20세기 후반~

추상표현주의·팝아트·미니멀리즘·개념미술·포스트모더니즘 다섯 항목이다.

서양 줄의 마지막 묶음이다.

그림 스타일 사전의 미니멀·추상 항목과 겹쳐 읽는다.

ABSTRACT EXPRESSIONISM

## 추상표현주의

약 1940–1960 · 20세기

추상표현주의는 1940~50년대 미국 화가들이 발전시킨 새로운 추상미술이다. 흔히 제스처적 붓질과 즉흥성의 인상이 특징이며, 역동적 제스처와 넓은 색면이라는 두 경향으로 묶인다.

흔히 제스처적 붓질

즉흥성의 인상

넓은 색면

대표작: 가을의 리듬: 넘버 30(Autumn Rhythm: Number 30) · 잭슨 폴록 · 195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NCEPTUAL ART

## 개념미술

약 1965–1975 · 20세기

개념미술은 완성된 미술 대상보다 작품 뒤의 관념(개념)이 더 중요한 미술이다. 1960년대에 운동으로 등장했으며, 흔히 완성된 대상을 만들지 않는 형식을 의도적으로 썼다.

관념의 우선

흔히 완성된 대상이 없는 형식

개념의 중요성

대표작: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One and Three Chairs) · 조지프 코수스 · 1965 ·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POP ART

## 팝아트

약 1955–?

끝 연도 기관 미제시

팝아트는 1950년대 중반 영국과 1950년대 말 미국에서 나타나 1960년대에 절정에 이른 미술 운동이다. 지배적 미술관과 '미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전통적 관점에 대한 반발로 시작해, 대중적이고 일시적이며 소모적인 대중문화를 끌어왔다.

대중문화 이미지 차용

대중적·일시적·소모적

전통 미술관에 대한 반발

대표작: 광!(Whaam!) · 로이 리히텐슈타인 · 1963 · Tate

POSTMODERNISM

## 포스트모더니즘

약 1970–?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관념과 가치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회의·아이러니·철학적 비판과 연관되며, 복잡하고 흔히 모순된 의미의 층을 받아들였다.

아이러니와 회의

복잡하고 흔히 모순된 의미의 층

모더니즘의 관념·가치에 대한 반동

대표작: 여자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하나?(Do Women Have To Be Naked To Get Into the Met. Museum?) · 게릴라 걸스 · 1989 · Tate

MINIMALISM

## 미니멀리즘

약 1960–1979 · 20세기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극단적 형태의 추상미술이다. 정사각형·직사각형에 기반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며, 작품을 있는 그대로만 보게 한다.

단순한 기하 형태

정사각·직사각 모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대표작: 등가물 VIII(Equivalent VIII) · 칼 안드레 · 1966 · Tate

# 한국

고구려 고분벽화·고려 불화·조선 전기 산수화·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조선 후기 풍속화·한국 근대 미술 여섯 항목이다.

서양 연표와 같은 세로 줄에 나란히 놓아, 같은 시기의 서양 사조와 눈으로 맞춰 본다.

그림 스타일 사전의 장르·화목 묶음과 함께 읽는다.

## GOGURYEO TOMB MURALS

### 고구려 고분벽화 高句麗 古墳壁畫

약 300–668 · 4세기–7세기

고구려 고분벽화는 4세기 무렵부터 668년 고구려 멸망까지 무덤에 제작된 벽화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장대하고 다양한 무덤 벽화에 속한다. 초기의 초상·생활 풍속에서 중기의 생활 풍속·사신, 후기의 사신 단독으로 주제가 단순해졌다.

묘주 초상·생활 풍속

사신 도상

대체로 석회 바탕을 활용한 벽화

대표작: 안악3호분 묘주 초상 · 미상 · 4세기 · 안악3호분(황해남도 안악, 현지)



## GORYE0 BUDDHIST PAINTING

### 고려 불화 高麗佛畵

약 918–1392 · 10세기–14세기

고려 불화는 고려 왕조의 불교 회화로,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 왕실과 귀족의 주문으로 승려 화가나 궁정 화원이 그렸다. 섬세함과 세련미로 이름나며, 우아한 얼굴과 가는 손가락, 붉고 녹색인 법의, 화려한 금니 장식이 특징이다.

우아한 얼굴·가느 손가락

붉고 녹색인 법의

화려한 금니 장식

대표작: Kshitigarbha · 미상 · 14세기 전만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EARLY JOSEON LANDSCAPE PAINTING (AN GYEON SCHOOL)

### 조선 전기 산수화(안견파) 朝鮮前期 山水畵

약 1392–1600 · 14세기–16세기

조선 전기 산수화는 1392년 조선 건국 이후 15~16세기에 화원 안견이 북송 곽희의 화풍을 바탕으로 세운 양식이 주도한 산수화이다. 대표작 「몽유도원도」(1447)는 역동적 필치와 빛나는 이미지를 보여 준다.

곽희풍 산수 구성

역동적 필치

소상팔경 주제

대표작: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 안견 · 1447 ·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일본 나라현)



TRUE-VIEW LANDSCAPE PAINTING

##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眞景山水畵

약 1700–1800 · 18세기

진경산수화는 아마도 18세기 조선 산수화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발전으로 꼽히는 산수화이다. 실제 한국 명승의 지형과 그 풍경에 깃든 심리적·미술사적 의미를 함께 표현하며, 정선이 창시자로 평가된다.

실제 한국 명승의 지형

풍경의 심리적 의미

풍경의 미술사적 의미

대표작: Inwang jesaekdo · Jeong Seon · 1751 · 국립중앙박물관



LATE JOSEON GENRE PAINTING

## 조선 후기 풍속화 風俗畵

약 1700–1800 · 18세기

조선 후기 풍속화는 서민의 노동·놀이와 남녀의 미묘한 정서 등 일상생활을 그린 회화이다. 김홍도의 풍속도첩에서는 세부와 채색을 줄인 스케치풍 화면을 볼 수 있다.

서민의 노동·놀이

스케치풍·채색 절제

남녀의 미묘한 정서

대표작: Danwon Ssireum · Kim Hong-do · 연도 미상 · 국립중앙박물관(보물 제527호)  
같은 사조의 다른 작품



MODERN KOREAN ART (LATE 19TH C.–1945)

## 한국 근대 미술

약 1880–1945 · 19세기–20세기

한국 근대 미술은 미술사가 김영나의 견해에서 새로운 변화가 처음 나타난 1880년대를 출발점으로 보는 미술이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도화서가 폐지되었고, 19세기에는 기명절지도가 독자적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고희동은 1909년 도쿄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도화서 폐지

기명절지도의 등장

서양화 교육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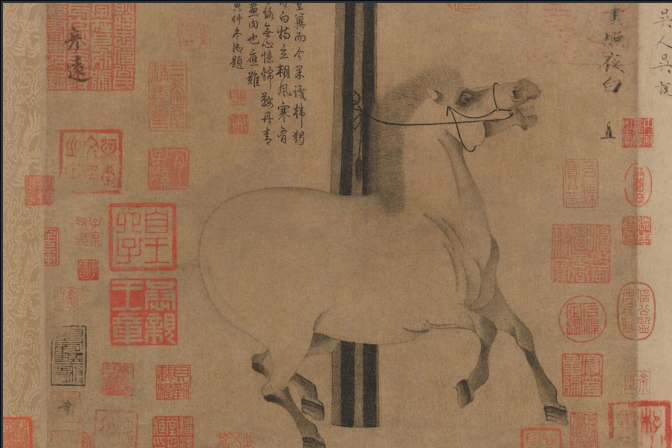
대표작: Still life with bronze vessels and flowering plants · Jang Seung-eop (sobriquet: Owon) · 189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중국

당 회화·북송 산수화·남송 원체화·원 문인화·명 오파와 절파·청 정통파와 양주팔괴 여섯 항목이다.

서양 연표와 같은 세로 줄에 나란히 놓인다.

산수화·문인화 항목은 그림 스타일 사전의 화목 묶음과 이어진다.



TANG DYNASTY PAINTING

## 당 회화 唐代繪畫

618–907 · 7세기–10세기

당 회화는 중국 미술·문학의 고전기로 평가되는 당 왕조(618~907)의 회화이다. 오도자의 힘찬 필치와 왕유의 자연주의적 화법이 후대의 전범이 되었고, 당 말에는 산수화가 독립 장르로 자리 잡았다.

힘찬 필치(오도자)

자연주의 화법(왕유)

독립 장르로서의 산수

대표작: 조야백도(照夜白圖, Night-Shining White) · 전(傳) 한간(韓幹) · ca. 75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ORTHERN SONG MONUMENTAL LANDSCAPE PAINTING

## 북송 산수화 北宋山水畫

960–1127 · 10세기–12세기

북송 산수화는 북송(960~1127) 초에 꽃핀 기념비적 산수화로, 중국 문명의 최고 예술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작은 산과 나무, 사람 위로 우뚝 솟은 주산을 '신하 위의 군주'처럼 배치해 자연의 도덕적 질서를 그렸다.

우뚝 솟은 주산 중심

위계적 자연 질서

세밀한 자연 묘사(화원)

대표작: Old Trees, Level Distance · Guo Xi · ca. 108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OUTHERN SONG ACADEMY PAINTING

## 남송 원체화 南宋院體畫

1127–1279 · 12세기–13세기

남송 원체화는 항저우로 옮긴 남송 황실 화원이 휘종이 세운 양식과 높은 기술 수준을 이어 그린 회화이다. 점차 좁고 집중된 시각과 대상의 정확한 묘사를 추구했다.

높은 기술 수준

좁고 집중된 시각

대상의 정확한 묘사

대표작: Scholar viewing a waterfall · Ma Yuan · early 13th century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YUAN LITERATI PAINTING (FOUR MASTERS OF THE YU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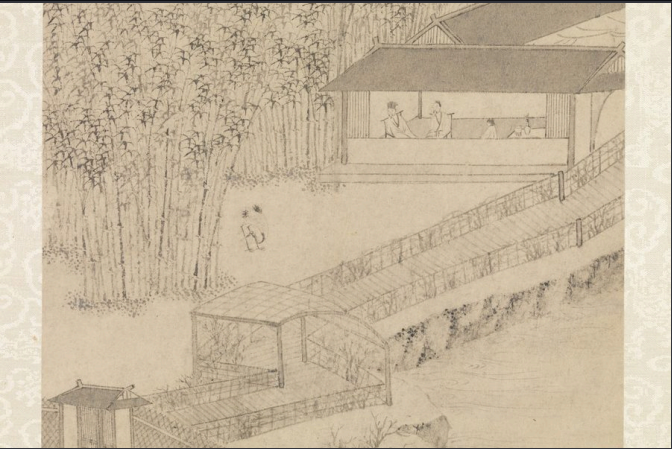
### 원 문인화(원사대가) 元代文人畫

1271–1368 · 13세기–14세기

원 문인화는 원 왕조의 문인 화가들이 자연에 대한 충실한 재현보다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그린 회화이다. 필법이 서예적으로 변해 재현 기능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얻었다.

- 자기표현의 수단
- 서예적 필법
- 재현 기능을 넘어선 필법의 자율성

대표작: 강저풍림도(江渚風林圖, Wind among the Trees on the Riverbank) · 예찬 · 1363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ING WU SCHOOL AND ZHE SCHOOL

### 명 오파·절파 明代 吳派·浙派

1368–1644 · 14세기–17세기

명 오파·절파는 명 회화에서 원 문인화와 남송 화원 전통을 각각 발전시킨 두 흐름이다. 절파는 남송의 묘사적 수묵 화풍을 높은 기교로 이었고, 오파는 절제와 수양을 강조하는 원 문인의 서예적 표현을 탐구했다.

- 절파의 묘사적 수묵 화풍
- 오파의 서예적 문인 필법
- 절제와 수양

대표작: Garden of the Inept Administrator · Wen Zhengming · 1551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QING ORTHODOX SCHOOL AND EIGHT ECCENTRICS OF YANGZHOU

### 청 정통파·양주팔괴 清代 正統派·揚州八怪

약 1644–1911 · 17세기–20세기

청 정통파는 동기창의 전통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왕시민과 그 추종자들이 발전시킨 화풍이며, 양주팔괴는 석도의 개성적인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 집단이다. 왕휘는 송 산수와 원의 서예적 필법을 종합하려 했고, 양주팔괴는 서예적 자기표현으로 인물·길상 화조를 그렸다.

- 옛 대가 화풍의 종합
- 서예적 자기표현(양주)
- 인물·길상 화조

대표작: Wangchuan Villa · Wang Yuanqi · dated 1711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일본

헤이안 야마토에·가마쿠라와 무로마치 수묵화·모모야마 가노파·에도 린파·에도 우키요에·메이지 일본화 여섯 항목이다.

서양 연표와 같은 세로 줄에 나란히 놓인다.

프롬프트에 일본 룩을 지정할 때 항목 이름으로 범위를 좁힌다.

YAMATO-E (HEIAN PERIOD)

### 헤이안 야마토에 大和絵

**794–1185** · 8세기–12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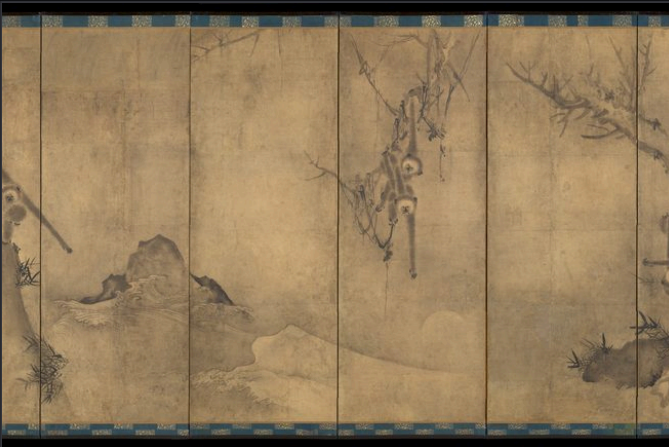
야마토에는 헤이안 시대에 처음 꽃핀 회화 장르이다. 인물은 대체로 양식화되고 얼굴이 간략하며, 밝고 두꺼운 채색·구름띠·후키누키야타이 기법이 흔히 관련 특징으로 꼽힌다.

대체로 간략한 얼굴의 인물

흔히 쓰이는 구름띠

흔히 쓰이는 후키누키야타이

대표작: 겐지모노가타리 에마키(源氏物語絵巻) · 미상 · 12세기 · 도쿠가와 미술관·고토 미술관



INK PAINTING OF THE KAMAKURA–MUROMACHI PERIODS

### 가마쿠라·무로마치 수묵화 水墨画

**약 1185–1573** · 12세기–16세기

가마쿠라·무로마치 수묵화는 선종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본의 수묵 단색화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작가는 빠르고 함축적인 필치로 그린 선승들이었으며, 중국풍 회화는 필법과 먹을 중시하고 중국 주제를 선호했다.

먹 위주 단색

빠르고 함축적 필치

선종 조사·산수 주제

대표작: Gibbons in a Landscape · Sesson Shūkei 雪村周繼 · ca. 157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KANO SCHOOL (MOMOYAMA PERIOD)

### 모모야마 가노파 狩野派

**1573–1615** · 16세기–17세기

가노파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화파이며, 가노 에이토쿠는 모모야마 시대 대화면 구성에 새로운 힘과 역동성을 도입했다. 금박 바탕에 큰 동물·인물·자연을 그린 장지와 병풍으로 다이묘가 표현하려 한 권력과 에너지를 나타냈다.

금박 바탕 장벽화

거대한 동물·수목

힘차고 역동적 구성

대표작: 당사자도 병풍 오른쪽 병풍(唐獅子図屏風, right screen) · 가노 에이토쿠 · 16세기 후반 · 산노마루쇼조칸(황실 소장품)



RINPA

## 에도 린파 琳派

?–1868

시작 연도 인용 근거 미확인

린파는 에도 시대 야마토에 부흥의 핵심 흐름으로, 조직된 세습 화파가 아니라 특정 양식으로 작업한 작가들을 가리킨다. 선명한 색을 장식적이고 패턴화된 방식으로 쓰며, 일본 문학에서 가져온 선호 주제에는 자연과 계절에 대한 암시가 흔히 담겼다.

선명한 색·장식적 패턴

자연·계절 모티프

고전 문학 주제

대표작: [Irises at Yatsushashi \(Eight Bridges\)](#) · [Ogata Kōrin](#) · after 1709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UKIYO-E WOODBLOCK PRINTS

## 에도 우키요에 浮世絵

약 1615–1868 · 17세기–19세기

에도 시대 우키요에 목판화는 도시 유흥가의 유녀와 가부키 배우를 가장 자주 그린 판화이다. 1765년 여러 색의 낱장 판화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화가·조각사·인쇄사·판원이 협업했다.

유녀·가부키 배우

다색 목판(니시키에)

화가·조각·인쇄·판원 협업

대표작: [Under the Wave off Kanagawa \(Kanagawa oki nami ura\)](#), or [The Great Wave](#), from the series [Thirty-six Views of Mount Fuji \(Fugaku sanjūrokkei\)](#) · [Katsushika Hokusai](#) · ca. 1830–32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IHONGA

## 메이지 일본화(니혼가) 日本画

약 1868–1912 · 19세기–20세기

니혼가는 메이지 시대에 서양식 유화와 구별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한 일본식 회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종이·비단에 전통 수용성·광물성 안료를 사용했으나 단순한 전통 계승은 아니었으며, 일부 화가는 서양의 사실적 음영법도 받아들였다.

종이·비단에 전통 안료

단순한 계승을 넘어선 변화

일부 화가의 서양 음영법 수용

대표작: [굴원\(屈原\)](#) · [요코야마 다이칸](#) · 1898 · [이쓰쿠시마 신사](#)

정의는 미술관·Britannica·학술 문헌 원문 인용에 근거하고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소장품이다.